

영어어문교육 제9권 2호 2004년 겨울

영어 등위구조의 중의성 연구

박 찬 규

(KonKuk University)

Park, Chankyu(2004). A Study of the ambiguity of coordinations in English.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9(2), 173-19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emantic ambiguity of coordination connected by 'and' in English and show a clear explanation for the meaning of the sentence. Two sentences which are connected by 'and' can be divided into the symmetric conjunction and the asymmetric conjunction according to its meaning. Especially, in order to explain the different meaning in the asymmetric conjunctions, we introduce the theory of presupposition and entailment, which provides the solution to the ambiguity in meaning. It can be said that presupposition and entailment can logically explain the meaning of natural language.

[coordination/ambiguity/symmetric/asymmetric/presupposition/entailment, 등위구조(관계)/중의성/대칭적/비대칭적/전제/함의]

1. 서론

인간의 언어는 보통 문장의 형태로 사용된다. 이때 여러 개의 문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는 의미자체가 복잡해져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문장간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서로 떨어진 문장간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접속사'를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접속사는 서로 관련된 표현의 문장, 구, 또는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접속성분이 결합하는 방법에 따라 등위접속(coordinate conjunction)과 종속접속(subordinate conjunction)으로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접속현상 중에서 등위접속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등위 접속 중에서도 'and'에 의해 연결되는 등위접속구조 연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등위접속구문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중의성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 (1) Turker and Heard left.
- (2) Shakespeare and Marlowe wrote plays.

위 문장 (1)과 (2)에서 접속 명사구를 각각 ‘Turker’ 와 ‘Heard’ 라는 명사, 그리고 ‘Shakespeare’ 와 ‘Marlowe’ 란 명사를 연결한 구접속 형태로 분석된다면, 다음 문장 (3)과 (4)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 (3) Turker and Heard left together.
- (4) Shakespeare and Marlowe wrote plays together.

그러나 문장 (1)과 (2)에 나타나는 ‘and’ 가 본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 (5) Turker left and Heard left.
- (6) Shakespeare wrote plays and Marlowe wrote plays.

결국 이런 의미의 차이는 등위접속사 ‘and’ 로 연결된 구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이와 같이, 등위접속사에 의해 접속된 문장은 표면에 나타난 문장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심층구조가 달라진다. 한편, ‘and’ 의 접속형태를 의미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7) a. Mary is eating toast and Fred is chasing the aardvark.
- b. Fred is chasing the aardvark and Mary is eating toast.

즉, 문장 (7)에서 (a)의 의미는 (b)와 같이 접속순서가 바뀌어도 문장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8) a. John insulted Mary and she hit him.
- b. Mary hit John and he insulted her.
- (9) a. The lone ranger mounted his horse and rode off into the sunset.
- b. *The lone ranger rode off into the sunset and mounted his horse.

위 문장에서 (8a)를 (8b)의 문장과 같이 접속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며, (9)의 경우는 순서를 바꾸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Lakoff (1971:126-29)는 (7)의 문장처럼 연결순서가 바뀌어도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의 ‘and’ 를 “대칭적 (symmetric) ‘and’ ”라 하고,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비문법적

인 문장이 되는 경우의 ‘and’ 를 “비대칭적(asymmetric) ‘and’ ” 라 부른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등위접속사 ‘and’ 로 연결된 구조를 의미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칭접속현상과 비대칭접속현상을 차례로 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의미적인 중의적 현상을 화용론적 접근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절에서는 등위접속 문장을 대칭접속과 비대칭접속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화용론적 분석으로 Grice (1975)와 Atlas & Levinson (1981)의 이론을 설명하고 타당성을 점검해본다. 4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등위구조 문장의 의미적인 중의성을 전제와 함의라는 이론을 도입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5절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II. 등위접속문장의 의미적 분석

1. 대칭 접속(symmetric conjunction)

대칭접속이란 ‘and’ 로 접속되는 두 문장이 서로 의미적으로 관계가 없으므로 이들 접속절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의 변화를 주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 않는 접속현상을 말한다. 즉, $p \cdot q \equiv q \cdot p$ 의 논리적 관계가 성립되는 접속구조이다(Schmerling 1975:211).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0) a.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and Tokyo is the capital of Japan.
- b. Tokyo is the capital of Japan, and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이와 같이, 문장 (10)의 (a), (b)는 비록 접속된 문장의 연결순서가 바뀌어도 의미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이런 대칭접속문장에는 접속형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접속되는 두 절 사이에 공통화제(common topic)가 있어야한다(Lakoff 1971:129).

- (11) John owns a yacht and Bill has a lovely home in Scarsdale.
- (12) *John owns a yacht and Harry has a \$30,000 mortgage on his house.

문장 (11)은 접속된 두 절의 주어인 ‘John’ 과 ‘Bill’ 이 각자 사치스러운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화제가 있지만, (12)의 문장에서는 그러한 공통화제가 없다.

둘째, 접속되는 두 절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모순 되지 말아야 한다.

(13) John eats apples and John eats apples.

(14) John is a strict vegetarian and he eats lots of meat.

즉, 문장 (13)에서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었고, (14)에서는 접속된 두 절의 내용이 모순을 나타내므로 좋은 문장이 될 수 없다.

셋째, 접속되는 두 절의 시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않는다.

(15) I wrote my grandmother a letter yesterday and six men can fit in the back seat of a Ford.

그러나 (15)의 문장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Gleitman (1965)은 “All English sentences are conjoinable by virtue of the shared string” 이라고 하면서 (15)의 문장은 가능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문장 (15)의 두 접속절이 시체가 다르고, 또한 각 접속절의 주어인 ‘I’ 와 ‘six men’ 이 상호 관계가 없어 공통화제를 찾기 어려우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접속되는 두 절은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행접속절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접속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6) The men were drinking some beer and the women were listening to music.

다섯째, 접속된 두 문장이 심층구조에서 ‘and’ 로 연결된 논리적 접속(logical conjunction)이므로 표층구조에서 두 번째 접속절의 주어가 생략되었을 때 다시 삽입할 수 있으며, 이때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17) a. John is a football player and John enjoys watching TV.

b. John is a football player and he enjoys watching TV.

c. John is football player and enjoys watching TV.

즉, 문장 (17)의 (a), (b) 그리고 (c)가 의미적으로 모두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에서 대상(referent)이 같을 때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17)의 (a) 문장에서 첫 번째 접속절의 ‘John’ 과 두 번째 접속절의 ‘John’ 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b)의 문장에서도 두 번째 절의 ‘John’ 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b)의 문장에서도 두 번째 절의 ‘he’ 가 첫 번째 절의 ‘John’ 을 지칭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상(referent)이 같은 경

우를 나타낸다.

이렇게 대칭접속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대칭접속은 논리적 접속현상이므로 접속되는 절의 연결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 비대칭 접속(asymmetric conjunction)

대칭접속이 ‘and’ 로 연결되는 두 문장이 서로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에 비해, 비대칭 접속은 서로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므로 각 접속절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전체의 의미에 변화를 주거나, 비문법적 문장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논리적으로 $p \cdot q \equiv q \cdot p$ 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못하는 경우다.

- (18) a. Harry stood up and objected to the proposal.
- b. Harry objected to the proposal and stood up.
- (19) a. I just returned home yesterday from a trip and I found your letter awaiting me.
- b. I found your letter awaiting me and I just returned home yesterday from a trip.

즉, 문장 (18)의 (a)와 (b)는 각 접속절의 행동이 일어난 순서가 다르고, 문장 (19)의 (a)와 (b)는 의미가 다르며, 또한 (19)의 (b)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and’ 로 연결되는 문장이 어떤 순서로 접속되는가에 따라 전체문장의 의미나 문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접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Lakoff (1971)는 비대칭접속에도 대칭접속과 마찬가지로 접속되는 두 절에는 공통화제가 있어야 하지만 대칭접속의 경우보다 제약이 완화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칭접속의 경우 시제가 다르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기 어려우나, 비대칭접속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전제(presupposition)하여 어떤 상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 (15)와 같이 시제가 달라도 어떤 특정시점(specific time)을 나타내는 접속절이 먼저오고, 일반적 시점 (generic time)을 나타내는 접속절이 나중에 오면 비대칭접속으로도 해석하기 힘들며, 문장 (20)과 같이 접속순서가 바뀌어 일반적 시점이 먼저 와야 어떤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0) Six men can fit in the back seat of a Ford and I wrote my grandmother a letter yesterday.*

* Lakoff(1971:128)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은 가정(assumption)을 설정하면 문법적이라 설명한다. 즉, 내가 어제 이전에 내기(bet)하기를, If six men could fit in the back seat of a Ford, I would write my grandmother a letter.,라 하면 문법적이다.

그러나, 일반적 시점이 먼저 와야 비대칭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음 문장을 볼 때 타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1) The mother bought a new lunch bucket for John and he can carry his lunch to school.

즉, 문장 (21)은 (20)과 달리 특정시점과 일반적 시점의 순서가 서로 바뀐 문장으로 (20)의 문장같이 일반적인 시점이 선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못한 문장이 된다. 이것은 곧 연결되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 접속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Lakoff는 두 접속절 중에서 한 접속절을 따로 분리하면 'and' 로 접속되었을 때 지닌 의미적 포함관계(semantic implication)가 없어지므로 본래의 문장의 의미가 일부 손상된다고 하였다.

(22) The teacher came into the classroom and the children stopped making a noise.

즉, 첫 번째 접속문은 두 번째 접속문에 대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22)에서 첫 번째 접속절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두 번째 접속절의 내용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두 절이 'and' 로 연결되므로 소위 부수적 정보(extra information)를 갖는다. 즉, Lakoff (1971)가 말하는 원인성(causality)과 시간적 선행(temporal priority)을 말한다.

(23) The fuzz came in and everyone swallowed their cigarettes.

(24) I started to type and the power went off.

말하자면, 문장 (23)에서는 첫 번째 접속절이 두 번째 접속절의 행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며, (24)에서는 첫 번째 절이 두 번째 절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난 것이다.

넷째, 대칭접속은 모두 논리적 접속이지만, 비대칭 접속은 다시 논리적 접속과 비논리적 접속으로 분류된다. Schmerling(1975)은 비대칭접속을 논리적 접속과 비논리적접속으로 구별하여 'and'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면, 비논리적 비대칭 접속과 논리적 비대칭 접속을 차례로 살펴보자.

1) 비논리적 비대칭 접속(asymmetric non-logical conjunction)

비논리적 비대칭접속이란, 표층구조에서는 'and' 로 연결되어 있지만 심층구조에서는 접속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 비대칭성이 심층구조에 나타남으로써 문장의 의미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수적 정보가 없어질 수가 없다. 그리하여 그 심층구조는 논리적 접속성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접속현상을 말한다. Schmerling (1975)은 다음과 같이 비논리적 비대칭접속의 특성을 설명한다.

첫째, 두 접속절이 'and' 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의 사건을 기술하므로 각 접속절이 개별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둘째, 두 번째 절의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주어를 다시 삽입하면 의미의 변화를 가져온다.

셋째, 'both' 를 삽입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넷째, 비논리적 비대칭접속문을 부정할 때 'and' 를 'or' 로 바꾸면 본래 그 접속문이 가지고 있는 부수적 정보를 나타내지 못한다.

(25) I went to the store and bought some whisky.

(26) Roy called a secret meeting and offended Bob.

(27) I went to the store and I bought some whisky.

(28) Roy called a secret meeting and he offended Bob.

위 문장을 분석해보면, (25), (26)은 각각 부수적 정보를 갖는다. 즉 (25)에서는 두 접속절안에 시간적 선후관계 (temporal sequence)를 가질 뿐 아니라, 첫 번째 접속절의 장소 표현(locative expression)이 둘째 접속절에도 포함된다. 그리고 (26)의 문장에서는 첫 번째 접속절이 두 번째 접속절에 나타난 사건의 원인을 나타낸다.

그러나 (27), (28)에서는 부수적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27)에서는 반드시 갔던 가게에서 위스키를 샀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28)에서도 Roy가 비밀모임을 가진 것이 Bob의 기분을 상하게 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25), (26)의 의미와 (27), (28)의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25), (26)의 심층구조가 각각 (27), (28)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27), (28)이 대칭접속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27)의 장소표현, 그리고 (28)에서의 원인성과 같은 부수적 정보가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부수적 정보가 대칭접속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논리적 비대칭접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 (28)의 문장이 분명 논리적 접속이므로 등위축약변형(conjunction reduction)규칙이 적용되어 다음 문장 (29)와 (30)과 같이 두 번째 접속절의 주어가 삭제되어도 의미의 차이가 없게 된다.

- (29) I went to the store and bought some whisky.
 (30) Roy called a secret meeting and offended Bob.

위 문장들을 살펴보면, (29), (30)는 각각 (25), (26)과 형태는 같지만, (27), (28)의 심층구조에서 각각 유도된 문장이다. 즉, (25), (26)은 등위축약변형이 적용되지 않은 형태인데, 이러한 차이는 특정상황(context)에서만 구별될 수 있다.

또한 의미적으로 (29), (30)의 문장이 (27), (28)의 의미보다 (25), (26)의 의미에 가깝다. 그러나 (27), (28)의 문장에 등위축약변형이 적용되어 (25), (26)이 유도 되었다고 하면 등위축약변형 규칙이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곧 비논리적 비대칭접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29), (30)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25), (26)이 논리적 접속이라면 부정문 형태를 갖게 되지만, 이러한 형태로는 (25), (26)의 부정은 나타낼 수 없으며, 결국 (25), (26)은 논리적 접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논리적 비대칭 접속현상을 살펴본다.

2) 논리적 비대칭접속(asymmetric logical conjunction)

논리적 비대칭접속이란, 심층구조에서부터 접속되어 표층구조에서도 접속으로 나타나는데 그 비대칭성이 심층구조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문장이 갖는 부수적 정보가 없이 질 수 있는 접속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부수적 정보가 없어질 때 논리적 비대칭접속은 논리적 대칭접속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논리적 비대칭접속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절이 'and' 로 연결되어 부수적 정보를 갖지만, 두개의 개별적인 문장이 합쳐진 것이므로 각 접속절이 개별적으로 떨어져도 의미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

둘째, 논리적 비대칭접속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 정보를 분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때 부수적 정보는 비논리적 비대칭접속문에서처럼 의미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함축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논리적 접속이므로 두 번째 접속절의 주어가 생략된 것은 심층구조에서는 완전한 두개의 문장이었던 것이 등위축약변형 규칙에 의해서 주어가 제거된 것이다.

- (31) I left the door open and the cat got in.
 (32) My wallet was stolen and I have to get a new driver's license.
 (33) a. Jack received a promotion from his company and he was transferred to Seattle.
 b. Jack received a promotion from his company and was transferred to Seattle.

위 문장 (33)에서 (a)는 (b)의 심층구조이므로 (a)와 (b)의 의미 차이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 (31), (32), (33)에서 부수적 정보가 시간적 선후관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접속절이 두 번째 접속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비대칭 접속에 있어서는 그 부수적 정보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접속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두 번째 접속절의 행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3. 이론의 비교 및 검토

Lakoff(1971)가 비대칭접속에서 언급한 특정시점(specific time)과 일반적 시점(generic time)이 연결되는 문장에서 일반적 시점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은 Schmerling(1975)의 논리적 비대칭접속에 속하는 것인데, 문장 (2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순점이 있음을 알았다. 즉, 접속되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 특정시점과 일반적 시점의 선후관계가 정해짐을 볼 수 있다. 또한 비대칭접속의 특성 중에서 첫 번째 접속절은 두 번째 접속절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역할을 하는 전제(presupposition)의 관계이므로 두개의 접속절 중 하나를 따로 분리하면 'and' 로 접속될 때 지녔던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은 Schmerling의 이론에서는 비논리적 비대칭접속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볼 때 'and' 의 비대칭접속 이론에서는 Schmerling(1975)이 논리적 비대칭접속과 비논리적 비대칭접속으로 세분한 이론이 단지 비대칭접속특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Lakoff의 이론보다 좀더 발전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비대칭접속형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비대칭접속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논리적 비대칭접속의 특성에서 'and' 로 연결된 두 절이 서로 부수적 정보를 갖지만, 별개의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이므로 각 문장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도 문장이 갖는 본래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Schmerling의 주장은, Lakoff의 견해인 두 접속절은 서로 의미적 포함 관계를 지니므로 분리되면 의미에 손상이 있다는 주장과 상반된 견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는 이유는 Lakoff (1971)는 비대칭접속문에서 부수적 정보는 꼭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Schmerling (1975)은 논리적 비대칭접속문의 중요한 특성중 하나인 부수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Lakoff (1971)는 접속된 두 절을 분리하면 그 접속문이 갖고 있는 부수적 정보를 잃기 때문에 분리된 두 절은 의미가 없는 문장으로 남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Schmerling (1975)은 본래 개별적인 두 문장이 'and' 로 연결된 것이므로 분리시켜도 각 접속문이 갖고 있던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에서 두 이론을 비교할 때 Schmerling의 비대칭접속에 대한 주장이 좀더 명확하게 비대칭접속을 설명할 수 있는 발전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nd'의 대칭적 의미와 비대칭적 의미는 표면에 나타난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마 나타난 문장에서 어떤 다른 의미를 유추함으로써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대화를 하는데 있어 화자와 청자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서 는 안

되고, 그 말에서 어떤 다른 의미를 유추해야 되는데 이것은 화용이론에서 나오는 함축(implicature)*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절에서 Grice(1975)와 Atlas & Levinson(1981)이 주장하는 화용이론을 바탕으로 중의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알아본다.

III. 화용론적 분석

앞장에서 대칭접속과 비대칭접속형태를 비교하면서 자연언어의 불완전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비대칭접속형태에 나타나는 의미를 분류하는데 가장 초점(focus)이 되는 것은 어떠한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그 표면에 나타난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본 절에서는 화용이론을 통해 언어의 중의적 현상이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살펴본다.

1. Grice (1975)

Grice는 대화에서 협동원칙(cooperative principle)이 지켜져야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협동원칙은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다. Grice는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34) Cooperative Principle

Make your conversational contribution such as is required, at the stage at which it occurs, by the accepted purpose or direction of talk exchange in which you are engaged(1975:26).

이와 같이 협동원칙은 우리가 대화에 참여할 때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의해 요구되는 정도의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 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4가지 대화격률(conversational maxims)로 분류하는데, 보다 이상적인 대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격률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Grice(1975: 26-27)는 말한다.

(35) Conversational Maxims

* 함축(implicature)이라 함은 주어진 맥락(context)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에 부가적(additional)으로 나타나는 명제를 말한다.

- 1) The maxims of quantity
 - a.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 of the exchange).
 - b.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 2) The maxims of quality
 - a.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 b.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 3) The maxim of relation

Be relevant.

- 4) The maxim of manner
 - a.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 b. Avoid ambiguity.
 - c. Be brief (Avoid unnecessary prolixity)
 - d. Be orderly.

그러나 실제생활에서의 대화는 이런 격률들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 대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격률을 어기는 경우도 있으며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 대화가 중단되거나, 대화자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인해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Grice의 대화함축이론은 대화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논의되는 개념이므로 화자가 격률을 위반하는 말을 할지라도 청자는 화자가 대화격률을 준수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대화할 때 청자는 화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만해서는 안되며, 그 말에서 어떤 다른 의미를 유추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추되는 의미가 대화 함축이다. 예를 들면,

(36) X: What is Jane doing now?

Y: She is in the kitchen.

* Laurence Horn (1984, 1988: 132)는 Grice의 대화격률을 the maxim of quality를 제외하고 두 가지 원리로 대체했다: The Q[quantity] Principle and The R[elation] Principle.

i) The Q principle: 'Make your contribution sufficient; Say as much as you can (given R).'
 ii) The R principle: 'Make your contribution necessary; Say no more than you must (given Q). (Jaszczolt 2002; 221)

위 대화에서 X는 Y에게 ‘Jane’ 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Y는 ‘Jane’ 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알려준다.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볼 때 두 사람의 대화에는 서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협동원칙과 대화격률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가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진다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화자 Y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비록 위와 같은 대답을 하더라도 X는 자기가 대화격률과 협동원칙을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Jane’ 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자신의 말속에서 유추해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와 같은 대답을 한다. 한편 X의 입장에서는, Y가 대화 격률과 협동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Y는 위와 같은 대답을 통해서 ‘Jane’ 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한다고 생각하고, ‘Jane’ 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결국, 대화함축이란 화자의 표현만 놓고 보면 대화격률과 협동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화자와 청자가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의미이다. 이런 대화함축이론을 바탕으로 2절에서 논의된 비대칭 접속 ‘and’의 의미를 살펴보자.

Lakoff (1971)는 비대칭접속에서 ‘and’로 연결되는 두 절이 부수적인 정보, 즉, 원인성(causality)과 시간적 선행(temporal priority)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대칭접속에서 ‘and’는 ‘and then’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Lakoff & Peters (1966)와 McCawley(1971, 1981)는 ‘and’의 비대칭의미는 시간적인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and then’이라 생각하고 있고, 반면 Quirk et al(1972)는 ‘and then’은 시간적인 전후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37) She washed the dishes and she dried them.

(38) a. Give some money and I will help you escape.

b. We should give him some money and he won't tell anybody what we did.

즉, (37)과 (38)에서의 ‘and’는 비대칭적인 ‘and’이고 이때의 의미는 ‘and then’이지만 (37)의 경우는 시간적인 전후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38)의 경우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조건과 결과, 원인과 결과와 같은 인과관계를 내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원칙과 대화격률이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한 Grice의 대화함축이론에서는 ‘and’가 비대칭구조에서 ‘and then’의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비대칭구조에서의 ‘and’는 단지 접속의 의미만 지닐 뿐 부수적 정보는 문맥에 따라서 화자의 함축(implicature)과 청자의 추론(inference)에 의해서 나타나는 함의(entailment)현상으로 일종의 파생의미로 보는 것이다.

2. Atlas & Levinson(1981)

Atlas & Levinson(1981)은 “정보성의 원칙(principle of informativeness)”이라는 ‘and then’에서 생기는 두 가지 의미관계를 밝혀줄 원칙을 제안한다. 이 원칙은 시간적 의미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사이의 관계를 Schmerling이 대등관계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 관계를 포함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Atlas & Levinson은 ‘A보다 B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 한다’라는 말은 “A의 논리적인 결과들의 집합(the set of logical consequences of A)”는 B의 논리적인 결과들의 집합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A가 의미하는 것은 B가 의미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 (39) a. All fruits are sweet.
b. All apples are sweet.

위 문장에서 ‘apples’는 ‘fruits’에 포함되기 때문에 (a)문장이 (b)문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지닌 문장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A라는 화자가 B라는 환경에서 X라는 청자에게 Y라는 문장을 말했다고 할 때, X는 Y에서 여러 개의 해석을 얻을 수 있는데, Y의 해석 중에 어느 하나가 X가 보기에 “최상의 선택(the best interpretation)”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일 때 “그 해석은 가장 정보적인 해석(the best interpretation)”이 된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Levinson(1983)은 비대칭적인 의미해석을 (40)과 같이 나타낸다.

- (40) Given p and q, try interpreting it as:
(1) ‘p and then q’ ; if successful try:
(2) ‘p and therefore q’ ; if successful try also:
(3) ‘p and q is the cause of q’

위 문장 (40)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된다.

- (41) a. Mart turned the switch and the motor started.
b. First Mart turned the switch and then the motor started.
c. Mart’s turning the switch indirectly caused the motor’s starting.
d. Mart’s turning the switch directly caused the motor’s starting.

위 문장 (41)에서 (d)가 가장 정보가 풍부한 것이라고 Levinson은 말한다. 따라서 Atlas & Levinson은 비대칭적 의미인 ‘and then’을 다음 같이 보는 것이다. 비대칭적 의미인 ‘and then’은 본래 시간적인 전후관계를 나타내지만 사건들 사이의 시간관계

나 인과관계를 인간의 상식적인 “관념조직(common sense conceptual scheme)”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에 시간적 전후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기본 의미이고 원인성을 나타내는 의미는 시간관계의 기본의미에서 나온 일종의 파생의미이다.

Atlas & Levinson은 정보성의 원칙도 일종의 대화격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부가적인 추론(additional inference)을 하는 대화격률의 ‘양’ 조항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발화가 포함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다.

함축의미는 어떤 것이든 대화격률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종류는 다양할 수 있고, 문맥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정보성의 원칙은 함축의미에서 또 다른 함축의미가 생겨나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전후관계는 인과관계로 확대해석이 가능할 경우도 있고, 불가능할 경우도 있으나, 인과관계는 반드시 사건사이에 전후관계가 성립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절에서는 함축 개념을 바탕으로 전제와 함의라는 화용이론을 통해 등위접속 구문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중의적 현상을 설명해본다.

IV. 함축개념과 등위접속

1. 전제와 함의

화용이론에서의 전제와 함의현상은 문장의 의미 연구와 발화의 적절성(appropriateness)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 (42) a. The Lions will play with the Giants tomorrow.
 b. The Lions play with the Giants tomorrow.
- (43) a. The Lions will beat the Giants tomorrow.
 b. *The Lions beat the Giants tomorrow.

Lakoff(1971)에 의하면 위 문장에서 나타나는 ‘will’ 삭제규칙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이 전제되어야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문장 (42)의 (b)가 문법적인 이유는 ‘Lions’ 팀과 ‘Giants’ 팀이 경기를 갖기로 한 확정된 사실을 화자가 알고 있기 때문이며, 반면 (43)의 (b)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경기의 승패는 경기가 끝난 결과를 보아야만 알기 때문에 화자의 확신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will’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전제와 함의는 진리조건에 의해서 정의되는 의미론적인 면과 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에 의해서 정의되는 화용론적인 면으로 구분(권경원: 1987: 7)되는데, 화용론

적 전제는 Austin(1962), Searle(1969), Grice(1975) 등의 화행이론(theory of speech act)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제를 화용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전제를 논리적 관계(logical relation)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맥락에서 문장이 적절하게 사용되는데 지켜지는 조건으로 간주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전제를 적정조건을 바탕으로 정의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적정조건이란 대화상의 특정상황하에서 화자와 청자의 믿음등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장이 적절하게 사용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의미론적 전제는 절대적 진리치가 부여되므로 절대성을 갖는 반면에 화용론적 전제는 상대적인 진리치가 부여되므로 상대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의미론적 전제를 어기게 되면 문장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반면에 화용론적 전제를 어기게 되면 주어진 발화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적절치 못할 뿐이다. 화용론적 전제를 Keenan(1971)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화용론적 의미에서 하나의 문장을 전제한다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그 문장의 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청자도 마찬가지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화용론적 견지에서는 발화된 문장이 전제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전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Karttunen(1973:169-70)는 화용론적 전제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

(44) Sentence A pragmatically presupposes a proposition B iff, whenever A is uttered sincerely, the speaker of A assumes B and assumes that his audience assumes B also.

(45) Sentence A pragmatically presupposes proposition B if it is felicitous to utter A in order to increment a common ground C only in case B is already entailed by C.

(Karttunen and Peters 1975:268)

화용론적 전제는 서로 용어는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두 가지 기본적 개념 즉, 적절성(appropriateness of felicity)와 상호지식(mutual knowledge) 또는 공동배경(common ground)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다.

(46) An utterance A pragmatically presupposes a proposition B iff A is appropriate only if B is mutually known by participants. - Levinson (1983:205)

그러면 다음 문장을 통해 화용론적 전제의 예를 들어본다.

* Austin(1962), Searle(1969), Grice(1975), 특히 Searle은 적정조건을 예비적 조건(preparatory condition), 진리성 조건(sincerity condition) 그리고 본질적 조건(essential condi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 (47) a. Close the door.
 b. The door is open.

문장 (47)의 (a)가 적절한 말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래서 문장 (47)에서 (a)는 (b)를 화용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47b)문장의 참을 청자와 화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a)는 적절한 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전제는 화자가 문장의 의미 중 자기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고 가정되는 부분으로 하나의 문장 또는 발화가 존재하기 이전의 개념으로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의미론적 내지 화용론적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용론적 전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적절하도록 어떻게 발화를 할 것인가 하는 생성(production)에 관한 제약이다. 반면에 화용론적 함의는 이미 주어진 발화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제약으로 인지(cognition)에 관한 제약이다. 화자가 가지는 자신의 가정과 청자에 대한 가정은 청자 자신의 가정과 청자가 화자에 대해서 갖는 가정과 일반적으로 중복(overlap)된다고 할 수 있지만, 꼭 같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화자 입장에서의 가정과 청자 입장에서의 가정이 중복될 때, 즉, 공동의식 영역을 형성했을 때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적정조건이나 대화력을 등은 화자에게만 주어지는 제약이 아니고 청자에게도 주어지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화용론적 전제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Karttunen(1973)의 함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 (48) Sentence A pragmatically entails a proposition B iff, whenever A is uttered sincerely, the hearer of A assumes B and assumes that the speaker of A assumes B also.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 예문을 통해 화용론적 함의를 알아본다.

- (49) My wife will be late.

문장 (49)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 가령 결혼한 남자가 파티에 혼자 가서 화자의 부인을 잘 알고 있는 주인에게 (49)과 같은 발화를 했을 경우에 (49)는 주인이 알고 있는 특정한 그녀가 늦게 올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만약에 화자와 화자의 부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어느 누군가가 주인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을 경우에는 (49)는 화자가 기혼자라는 정보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부인이 늦을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해준다. 이처럼 하나의 발화가 일어나면, 그 발화에서 정보를 도출해내는 장치가 바로 화용론적 함의가 된다.

그러면, 다음 예문을 통해 위에서 설명된 전제와 함의의 관계를 알아보자.

- (50) a. Tucker and James left.
 b. There were two persons, Tucker and James.
 c. Tucker and James left together.
 d. Tucker and James left separately.

문장 (50a)가 적절한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a)문장은 (b)문장을 화용론적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발화된 (a)문장에서는 (c)와 (d)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즉, 발화된 (a)문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떠난 것과 또한 각각 떠났다는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설명된 전제와 함의를 적절하게 나타낸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문장의 의미 중 자기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고 가정하는 전제와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문장에서 부수적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문장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화용론적 함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고, 함의는 글자 그대로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문장이나 발화가 부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언어적 의미(linguistic meaning) 또는 정보(information)장치인 것이다. 그러면 비대칭접속 문장을 전제와 함의로 새롭게 분석해 보겠다.

- (51) a. Harry stood up and objected to the proposal.
 b. There was a man, Harry, who was present at the meeting.
 c. Harry stood up and he objected to the proposal.
 d. Harry stood up and objected to the proposal.

즉, 문장 (51)의 (a)문장이 대화의 적절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b)문장을 전제해야만 된다. (a)문장은 (b)를 전제로 (c)와 (d)를 생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장 (a)는 (b)문장을 전제하고, 함의 현상으로 인하여 (c)와 (d)의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c)와 (d)는 함의에 의해서 나타난 문장인 동시에 (a)의 심층구조가 될 수 있다. 즉, (c)와 (d)도 (a)에서 함의되는 각기 다른 의미의 문장이다. 즉 의미를 살펴본다면 (d)는 Harry가 일어서서 바로 제안을 반대했다는 의미가 되겠고, 반대로 (c)는 Harry가 일어서자마자 제안을 반대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주어의 두 번째 동작이 시간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비대칭접속구문을 다시 한번 전제와 함의로 새롭게 분석해본다.

- (52) a. Lizzie Borden took an axe and gave her mother forty whacks.
 b. There were two persons, a mother and a daughter, who were fighting each other.

- c. Lizzie Borden took an axe and she gave her mother forty whacks.
 d. Lizzie Borden took an axe and gave her mother forty whacks.

(52)에서 (a)는 (b)를 전제로 발화된 문장이다. 즉 (a)문장은 (b)를 전제로 (c), (d)를 생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b)를 전제로 발화된 (a)는 함의 되어 (c), (d)의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즉 (c), (d)의 문장은 (a)의 심층구조가 되는 것으로 ‘and’ 다음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51)의 문장과 같은 맥락에서 분석된 것으로 표면에 나타난 등위접속구문은 전제와 함의를 통하여 심층구조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전제와 함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제는 화자가 문장의미 중 자기와 청자사이에 공유되고 있다고 가정되는 부분으로 하나의 문장 또는 발화가 존재하기 이전의 개념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발화된 문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함의는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문장이나 발화가 부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언어적 의미(linguistic meaning)또는 정보(information)장치인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영어의 등위접속구문의 심층구조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의미적 중의성에 대한 연구로 ‘and’ 로 연결되는 두 문장을 의미에 따라 대칭접속과 비대칭접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칭접속은 논리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심층구조에서는 문장접속이 됨을 알았다. 그러나 비대칭접속은 이를 다시 비논리적 비대칭접속과 논리적 비대칭접속으로 세분하여 검토하였는데, 인용된 문장에 다소 모호함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의미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비대칭접속문장을 화용론적 분석으로서 함축개념을 바탕으로 한 대화함축과 정보성의 원칙이라는 이론으로 비대칭구조에서 나타나는 ‘and’ 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and’ 의 의미를 여러 학자들은 ‘and then’ 으로 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Grice(1975)와 Atlas & Levinson(1981)의 이론에서는 ‘and’ 를 접속사의 의미로만 보았다. 이것은 심층구조가 문장 접속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이 화용이론이 언어현상을 연구하는데 한층 발전된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단지 언어현상을 구조나 의미로만 분류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서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현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러하여 필자는 좀 더 타당한 이론으로 언어현상을 설명하기위해 전제와 함의개념을 도입하여 새롭게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심층구조에서 생성되는 접속형태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다는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발화된 문장에서 청자가 함의에 의해 문장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제와 함의로

서 대화함축에서 나타난 심층구조상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자연언어의 의미를 좀더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알았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외국어로서 영어 교육이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과거 독해와 문법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한 실용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으로 외국어 교육에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언어 교육이 될 수가 없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 즉 언어의 속성을 근거로 기능과 의미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외국어 교육은 또 다시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진부한 교육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외국어 교육은 목표하는 언어의 기본 속성과 언어의 구조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인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장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접목이 된다면, 좀 더 올바른 외국어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 경 원 (1987). *진재와 함의 연구* 서울: 한신 문화사
- Atlas, J. D. and S. C. Levinson (1981). "It-cleft, informativeness and logical form: Radical Pragmatics" in *Radical Pragmatics*, ed. by P. Cole. New York: Academic Press.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ed in 1975. Second edition.
- Gleitman, L. (1965). "Coordinating conjunction in English" *Language* 41, 250-293.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The Logic of Grammar*. ed. by D. Davidson and G. Harman, Encino, Cal : Dickenson Pub. Co.
- Horn, L. R. (1984). 'Toward a new taxonomy for pragmatic inference: Q-based and R-based implicature' in Schiffrin (ed.), 11-42.
- Horn, L. R. (1988). 'Pragmatic theory' in f.J. Newmeyer (ed.)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Vol. 1. Linguistic Theory: Foundations*, Cambridge: Cmabridge University Press, 113-145
- Jaszczolt, K. M. (2002). *Semantics and pragmatics*, Longman: Pearson Education.
- Karttunen, L. (1973). "Presupposition and linguistic context", *Theoretical Linguistics*, 1, 181-94.
- Karttunen, L. and S. Peters (1975).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Montague Grammar" in *BLS. 1 : Papers from the First Meeting of Berkeley Linguistic Society*,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 Keenan, Edward. (1971). "Two kinds of presupposition in natural language," in

- Fillmore & Langendoen, eds. pp. 45-53.
- Lakoff, G. and S. Peters. (1966). "Phrasal conjunction and semmetric predicates" in *Modern Studies in English*. ed. by D. Reibel and S. Schane. New York: Prentice-Hall
- Lakoff, R. (1971). "It'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in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ed. by C. Fillmore and D. Langendoe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London : Cambridge Univ. Press.
- McCawley, J. D. (1971). "Tence and time reference in English" in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ed. by C. Fillmore and D. Langendoe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McCawley, J. D. (1981). *Everything that linguists have always wanted to know about logic but were ashamed to ask*. Basil Blackwell : Chicago Univ. Press.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 Seminar Press.
- Schmerling, S. F. (1975). "Asymmetric conjunction and rules of conversation" in *Syntax and Semantics 9*. New York: Academic Press.
- Searle, J.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 (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박찬규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

380-701 충북 충주시 단월동 322

Tel. (043)840-3114

Email: chankyu7@kku.ac.kr

Received in Nov., 2003

Reviewed in Dec.,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an., 2004